

2018 프랑스의 이해



6.2 4월 9일(월)

시간 속의 프랑스(2) : 중세에서 절대왕정까지



1. 중세 시대와 봉건제도



□ 봉건제도의 등장

- 샤를마뉴 대제의 죽음과 함께 통일제국 프랑크 왕국의 힘이 급격히 약화되고, 봉건제도가 성립한다.
- **봉건제도**란? : 봉토를 주고받음으로써 기사는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, 영주는 신하를 보호해 주는 제도
- **봉토**란? : 주군과 신하의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주고받는 토지
- 영주가 다스리는 땅 **장원**
- 장원을 구성하는 계급 : **영주** (땅의 주인) > **기사** (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한 신하) > **농민** (영주에게 현물과 부역을 제공)

2. 위그 카페의 카페 왕조

□ 카페 왕조의 성립과 발전

- ‘신의 은총’을 받은 왕 위그 카페가 카페 왕조를 창시한다.
- 세속의 우두머리인 왕과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의 관계가 돈독해진다.
- **십자군 원정을 통한 왕권의 확립** : 셀주크 튀르크가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지의 탈환을 위한 전쟁
- 루이 6세부터 왕권이 강화되면서 중앙집권 체제의 길을 마련
- ‘**성왕 루이**’라고도 불렸던 **루이 9세**의 치하에서 통일 왕국의 기초가 다져진다.



사크레피르(성심) 성당 정면



‘성’ 루이 기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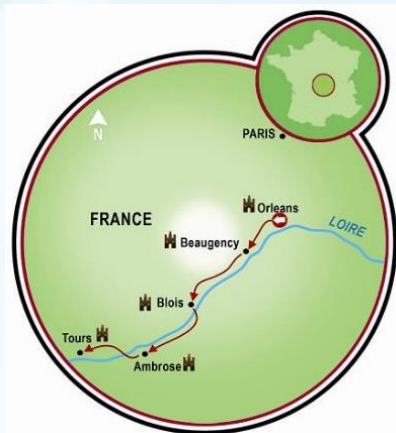


전다르크 기마상

3. 백년전쟁과 잔다르크

잔다르크 (1412~143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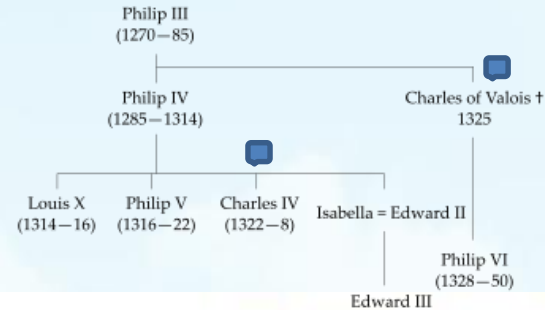
- Sancta Ionna de Arc
- 성녀 요안나 아르크
- 오를레앙의 성처녀 잔다르크



3.1. 백년전쟁(1337~1453)

□ 프랑스와 영국의 대립

- 중세 말기 **영국과 프랑스가** (116년 간) **벌인 전쟁**
- 직접적 계기 : 카페 왕조의 샤를 4세 사망 후, 영국왕 에두아르 3세가 **프랑스 왕위 계승권**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.
- 실질적 계기 : 유럽 최대 모직물 공업지 **플랑드르 지역을 둘러싼 이해관계, 영토 문제**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발발했다.
- 전쟁 초반에는 영국이 우세했으나, **최종 승리자는 프랑스**



3.1. 백년전쟁(1337~1453)

□ 백년 전쟁의 결과

- 프랑스인과 영국인의 **민족 감정 형성**
- 프랑스 : 영국을 물리친 프랑스는 왕권을 강화하여 **절대군주제**의 기반 마련
- 영국 : 왕권의 실추로 왕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**의회민주주의**의 기반 형성
- 근대적 국가 체제로 이행
- 샤를 7세 : 발루아 왕조 건국



3.2. 오를레앙의 성녀 잔다르크

□ 잔다르크 (Jeanne d'Arc = Ionna de Arc)

- 1412~1431
- 프랑스 북서부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났다.
- 16살 되던 해, 천사의 계시를 받고 샤를 왕세자를 도와 백년전쟁에서 프랑스를 승리로 이끌고, 샤를 왕세자를 샤를 7세 프랑스 왕으로 즉위 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.
- 샤를 7세 즉위 후, 왕을 둘러싼 귀족들의 질투의 중심이 되었다.
- 결국 마녀로 몰려 19세에 화형을 당한다.
- 전쟁이 끝난 3년 뒤 샤를 7세는 그녀의 마녀 혐의를 풀어주고, 명예를 회복시켜주었고, 로마 종교재판소는 잔다르크를 순교자로 선언한다.
- 1920년 프랑스의 수호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추대되었다.
- 잔다르크는 오늘날까지 프랑스인들에게 **승리의 여신, 행운의 여신, 전투의 마스코트, 강인한 여성의 대명사**로 자리잡고 있다.

잔다르크의 활약

- 샤를 왕세자와의 만남(1429.2)
- 오를레앙 해방(1429.5.8)
- 샤를7세의 대관식(1429.7월)
- 투옥(1430.5)
- 화형(1431.5.30)
- 백년전쟁의 끝(1453)
- 성녀로 시성(1920)



프랑스군의 맨 앞에 서서 전투를 지휘하는 잔 다르크



미녀로 몰려 화형 당하는 잔 다르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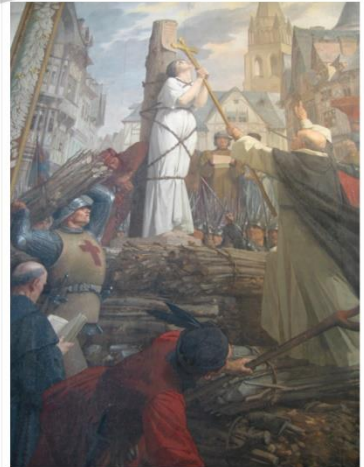
프랑스를 빛낸 위인들의 전당 ‘팡테옹’의 벽화 : 잔다르크의 일생



cornucopia.egloos.com



cornucopia.egloos.com



cornucopia.egloos.com

19세기의 잔다르크

□ 19세기 중반,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**민족 정체성의 상징**으로 부상한 잔다르크

- 1914년 12월 모리스 바레스 : 잔다르크 국민 축제를 위한 법안 발의
- 1920년 7월 20일자 법에 의해 공식 축일로 지정
- **좌파** : 왕에게 버림받고 교회에 의해 화형 당한 **민중의 딸**에 초점
- **우파** : 외세에 저항한 구국의 소녀, **가톨릭의 성녀** 이미지를 강조



파리 피라미드 광장의 잔다르크 기마상(1899)
1870년 보불 전쟁 패배 후 국민적 자존심 회복을 위해 국가에 의해 주문되어 설립되었다.

독일 나치 정권 치하 비시(Vichy) 정권의 잔다르크

- 영국 침략자에 대항한 인물로 묘사
- 잔다르크를 본받아 (영국을 포함한) 연합군과 맞서 싸우자!
- 영국군에게 화형 당하는 잔다르크의 포스터 제작
- 혁명과 공화국을 상징하는 마리안느에 대항하기 위해 잔다르크 숭배 열풍 조장



비시 정권이 배포한 포스터
« 살인자들은 범행 현장에
다시 나타나기 마련이다. »

자유 프랑스의 잔다르크

- 잔다르크가 맞서 싸운 상대는 외국 침략자
- 현재 프랑스의 적은 영국이 아니라 독일임을 강조
- 비시 정권은 잔다르크를 적에게 팔아 넘긴 부르고뉴인



드골이 이끌던 자유 프랑스군의 깃발
잔다르크를 상징하는 로렌의 십자가

오늘날의 잔다르크

□ 잔다르크와 국민전선

- 1980년대 중반부터 극우정당 국민전선(Front National)은 반외세, 반이민의 아이콘으로 잔다르크를 선택
- 매년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대항, 잔다르크의 기마상 앞에서 기념 행사를 추진
- << 프랑스인들이 우선! >>



국민 전선의 정치적 상징이 된 잔다르크

4. 중세시대의 종말과 르네상스

□ 유럽의 중세 시대란?

- 로마제국의 멸망(395) ~ 동로마제국의 멸망(1453)
- 기독교 유일신 하느님을 최고로 받들던 시대 : **교회와
기독교 군주의 시대**
- 중세 시대의 종말과 함께 찾아온 새로운 기운
 - 르네상스
 - 종교개혁

4. 중세시대의 종말과 르네상스

4.1. 르네상스란?

□ Renaissance : ‘부활’, ‘다시 살아남’

- 무엇이 다시 살아나는가? : 숨 막힐 듯한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벗어 던지고 자유로움이 넘치는 옛날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사상과 예술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.
- **문예 부흥기**
- **인본주의** : 신 대신 인간이 모든 사고의 중심이 된 시대
- 르네상스의 시작은 이탈리아
- 프랑스에서는 **발루아 왕조의 프랑수와 1세** 시기 르네상스가 꽃핀다.
- 르네상스는 훗날 프랑스 대혁명이 싹트게 한 씨앗 역할을 했다.

4.2. 종교전쟁

□ 종교전쟁의 배경

- 16세기 초 독일인 마틴 루터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
- 개신교는 프랑스에도 급속히 퍼져 많은 신교도가 생겨났는데, 이들을 '위그노'라고 불렀다.
- 왕권이 약화되면서 여러 정치 세력이 가톨릭과 위그노 세력을 등에 업고 권력 쟁탈전을 벌인다.
- 종교내란의 연속과 불안한 왕권
- 1572년 **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**
- 1589년 발루아왕가의 최후의 왕 앙리 3세가 암살 당한다.



4.3. 툴레랑스의 기원 앙리 4세

□ 앙리 4세와 낭트칙령

- 1572년 나바르의 왕 앙리가 부르봉 왕조의 첫 번째 왕 **앙리 4세**로 등극
- **낭트칙령** 발표 : 왕국의 절대 다수가 가톨릭으로 남아 있음을 파악하고, 스스로는 위그노였지만 **신교를 포기하고 가톨릭으로 개종**하여 종교간 화해와 평화 정책을 실시
- 낭트칙령의 의의 : 신교도들에게 제한적이거나 종교의 자유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 시켰다.
-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원칙인 **툴레랑스의 시작**을 알리는 사건 : 현대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가능케 하는 요소



5. 유럽의 절대군주 루이 14세

□ 부르봉 왕조와 절대 왕정

- 부르봉 왕조(1589~1792)는 절대왕정의 기틀을 다져나갔다.
- 부르봉 왕조에는 **루이왕**이 6명, 역대 프랑스 지배자 중에는 20여명이 ‘루이’였다.
- ‘루이(Louis)’라는 이름은? : 라틴어 루도비쿠스 (클로비스를 가리키는 라틴어식 이름)에서 유래, ‘뛰어난 전사’를 의미한다.

5.1. 절대군주제의 성립과 루이 14세

□태양왕 루이 14세

- 5세 즉위, 15세 국왕 대관식
- 어머니 안 도트리슈와 마자랭의 섭정
(1643~1661)
- 1661년 23세 때 마자랭이 사망한 후 친정을 선포, 1인 통치 체제 구축
- 최장 통치 기간 : 5살~77살까지 72년 3개월 18일
- **절대적 권력** : ‘**짐이 곧 국가다.**’
- ✓ **근대국가 건설**을 주도한 강력한 행정 군주
- ✓ **국가재정을 파탄 내고** 대혁명의 씨앗을 뿌린 전제군주



5.2. 프롱드의 난

□ 프롱드의 난?

- 안 도트리슈와 마자랭에 대항한 반란
- 제1차 (1648) : 고등법원의 프롱드
- 제2차 (1650~1953) : 공작의 프롱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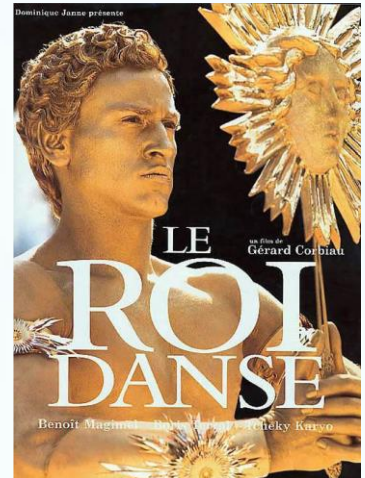
□ 프롱드의 난 이후 루이 14세는...

- 고등법원과 귀족 세력을 약화시켜 절대 왕정의 노선 구축
- 프롱드난의 발생지이자 귀족 세력의 집결지인 파리를 버리고 베르사유에 새로운 궁전 건설



5.3. 태양왕의 업적

- 왕권 강화 : 고등법원의 권한 축소, 왕족과 귀족의 정치 참여 제한
- 통일 국가의 기틀 마련 : 지방마다 제각기 다른 관습과 종교로 시끄러웠던 프랑스에 국가의 틀을 마련했다.
- 중상주의 정책
-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
- 프랑스 고전주의 문화의 완성
 - 베르사이유 궁전의 건립
 - 라신, 코르네이유, 몰리에르 등의 작가, 릴리와 같은 음악가 등 예술가들을 후원하며 고전주의 문화를 꽃피웠다.



Merci!

고맙습니다.

수고 많으셨어요.

다음 시간에...^^

다음 시간에는

《프랑스 역사 : 프랑스 혁명,
새로운 시대의 시작》를 주제로
함께 하겠습니다.

